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문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그 상황에 적절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학자들의 논문, 언론 보도자료, 연설문 등은 문맥에 대한 의존도와 표현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 중의성, 다의성(ambiguity) 등을 피하는 한편 권위를 가지고 청중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격식성(formality)이 높은 언어를 사용한다(Heylighen & Deweale 1999: 1). 반면 영화 대본, 문학작품, 일상 대화와 같이 인간관계의 친밀성 강화, 공감대 형성, 풍부한 감정 표현 등을 중요시 하는 텍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격식성이 낮은 언어를 사용한다. 텍스트의 성격상 격식성이 높은 문체는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문법·언어적으로 엄격하며 장중하다는 특징이 있고 격식성이 낮은 문체는 함축적이고, 문법적으로 유연하며, 감정개입이 두드러지는 반면 정보성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번역에 있어 격식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의 격식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 직분, 친밀도 등에 따라 거리와 예의를 지키는 규칙이 복잡하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격식을 중요시한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권력관계, 즉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언어체계이다(심윤섭 2008: 139). 결국 사회 체계뿐 아니라 언어 사용 습관 면에서도 격식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어의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번역면에서 볼 때도 번역 과정의 속성상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는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보다 명시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Klaudy 1998: 84). 이와 같이 번역 자체가 원문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암시적, 함축적 표현을 피하고 문맥을 이해하기 쉽게 정확한 표현을 써주게 된다. 결국 번역 작품의 격식성은 원천텍스트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격식성과 공손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 같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격식성이 높고 이미 마련된 뉴스 작성 지침과 형식이 있음에도 한국어 텍스트가 영어 텍스트보다 현격히 격식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2007: 276). 그렇다면 텍스트 장르상 예술적, 수사적 표현이 중요시되며 감정 이입도가 높고 의도적으로 의미의 다의성, 모호성을 추구하기도 하는, 즉 일반적으로 격식성이 낮은,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는 격식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특징들이 언어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문학작품의 특징인데다 원문에 대한 언어적 충실성이 가장 강조되는 장르가 문학번역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원문의 격식성은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번역과정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명시화’, ‘표준화’를 하게 되거나, 목표언어(target language: TL) 문학의 격식성을 고려했을 때 원문의 격식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본 경우,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격식성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문학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격식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텍스트에 관용어와 비속어, 형식을 깨는 작가 특유의 창의적 표현이 가득해 격식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원문과 같은 격식성 수준을 유지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격식성의 잣대가

되는 문법, 어휘, 문장구조에 있어 격식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비속어 사용, 관용어, 은유적 표현 등 수사적 도구 사용 등을 중심으로 ST와 TT의 격식성 차이를 연구하겠다.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어법의 차이에 따른 격식성의 변화는 직접적인 연구 과제로 삼지 않았다.

2. 번역에 있어서의 격식성

격식성이 높은 문체와 낮은 문체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는 문법, 문장 구조, 어휘 등이다. 공격적이고 심각한 사안에는 문법에 맞고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문장 구조도 길고 복잡한 편이다. 이에 반해 사적이고 긴박성,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일수록 격식성이 떨어져 짧고 간결한 문장을 쓰고, 문법을 중요시 하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친근한 단어들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격식이 떨어지는 문체일수록 더 구어적이고 대화체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주제, 텍스트의 목적, 자신의 역할, 청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격식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격식성과 긴밀히 관련된 다른 개념은 공손성(politeness)¹⁾이다. 페넬로페 브라운(Penelope Brown)과 스티븐 레빈슨(Stephen Levinson)에 의하면 공손성은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체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공손성은 사회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모두 사용되는데,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타인의 체면(face)을 인정하는 것은 존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우정과 유대감의 형태로 표현된다. 공손성이 사회적 거리에 따라 이같이 구분되는 것에 기초하여 공손성은 부정적 공손함(negative politeness)²⁾과 긍정적 공손함(positive politeness)으로 나누어진다. 부정적 공손함은 독립성, 자유를 침해받지 않음, 거리를 지키면서 예의를 차리는 것 등 감정의 절제에 기초하고 긍정적 공손함은 서로간의 유

1) 공손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어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문어체의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2) 여기서 ‘부정적’이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정적’과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

사성, 친밀감,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에 기초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공손하다’, ‘예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 공손함을 가리킨다(서재석 역 2001: 90-93).

이와 같이 언어의 용인성(acceptability)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격식성이라는 요소가 번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번역에 있어서 격식성과 공손성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한 줄리안 하우스(Juliane House)에 의하면 ST와 TT의 격식성은 각 언어의 언어사용 규범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어와 영어의 규범을 비교했을 때 독일어의 특징은 명시화, 내용 중심, 자기 중심, 직설적 표현, 관습의 공식화 등으로 나타났고 영어의 특징은 함의, 타자 중심, 청자 중심, 간접적, 타자 중심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공손성이나 격식성에 대한 독일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의 태도는 다르며 이것이 번역에 반영되었다(House 1998: 62). 예를 들어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 작가 다니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의 작품 『히틀러의 동조자들: 평범한 독일인들과 홀로코스트』(*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는 독일어로 번역되었을 때 그 개념적, 기능적 구성요소들은 보존되었으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특징들은 사라졌다. 즉, 독일어 번역본은 등장인물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더 멀고, 청자에 대한 대사의 힘, 감정 개입도도 낮으며,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격식성이 많이 올라갔다(1998: 69).

번역문에는 TL의 격식성, 공손성에 대한 규범을 지키려는 의도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실 하티م(Basil Hatim)은 로저 셀(Roger Sell)을 인용하여 “작가들의 문체와 주제 내용에 대한 선택은 ‘공손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 사용자들이 자 문화 내의 온갖 금기와 사회적, 규범적 예절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1998: 88) 라고 하였다. 번역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중재자로서 SL과 그 문화에서 작용하는 규범과 공손성을 잘 파악한 후 ST 내의 공손성을 TL과 그 문화에 적합하게 표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어권 독자들의 수용성(acceptability)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티미 이것을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의 경우에 국한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호소력 있는 텍스트나 문학 텍스트의 경우는 TL의 언어,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더라도 ST의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TL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신선함을 주는 것이 더 중

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사회적, 텍스트적 유형을 번역가가 굳이 바로잡으려는 것은 ‘청하지 않은 간섭(uninvited intervention)’을 하는 격이 된다고 보았다(1998: 97). 결국, 하킴은 번역가들은 TL의 격식성과 공손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문학번역의 경우는 ST 작가의 문체와 의도성을 고려해 ST의 격식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3. 용인성 면에서 본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

일반적으로 격식성이 높으면 예의를 중시하는 부정적 공손함이 높고³⁾ 격식성이 낮으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 공손성이 높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텍스트 전체적으로 격식성이 매우 낮으며 주변인물이나 청자에 대한 예의와 거리감 면에서 본 부정적 공손함도 낮으나 긍정적 공손함은 높은 편이다. 텍스트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친구들 사이의 비속어, 친근하고 쉬운 구어체 대사 등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 사이의 사회 문화적 소속감을 강화시키며 주인공의 사상과 사회 집단에 동질감을 느끼는 독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 텍스트가 성장소설이고 퇴학당한 후 3일간 일어난 사건들을 기본으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풀어가고 있는 1인칭 내러티브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격식이 없는 일상적 어투를 사용한 것은 독자와 공감대를 이루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호밀밭의 파수꾼』에는 일상적인 관용어에 비속어를 섞어 더 강한 감정을 실은 수사적 표현도 즐비하다. 수사적 표현들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교감,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는 언어적 도구이며 격식성을 낮추는 대표적인 요소(Gibbs 1994: 134)로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ST의 격식성이 낮은 만큼 번역작에 대한 TL 문화권의 용인성 여부가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번역 분석을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3) 격식성이 높으면서도 매우 딱딱하고 건조하며 직접적인 사실만 정리된 텍스트들, 예를 들어 일기예보, 경기 분석 등의 경우 부정적 공손성이 높다고 할 수 없듯이 항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문학의 비속어나 수사적 표현 현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어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토속어, 구어체, 비속어와 관용구가 자주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⁴⁾, 김유정의 『봄봄』⁵⁾, 『금파는 콩밭』⁶⁾, 『동백꽃』⁷⁾ 등 한국어로 된 소설에 등장하는 비속어는 토속적 주제를 담거나, 고단한 삶의 비애와 해학이 섞인 판소리 풍인 경우가 많아 질박하지만 구수하고 친근함이 배어난다. 직설적으로 쏟아 내는 욕설과 거친 표현은 서민들의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의 애환에 시달리는 등장인물들에게는 위안이 되었고 독자들에게도 카타르시스가 되었다.

이 같이 소설에서 은유, 비속어를 쓰는 것은 우리 문학에도 항상 중요한 문학적 장치였으나 구체적으로 『호밀밭의 파수꾼』과 유사한 성격의 현대 한국어 청소년 문학에서는 비속어, 수사적 표현 등이 중요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TL의 규범을 알아보는데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작품은 김종광의 『착한 대화』⁸⁾와 김려령의 『완득이』이다. 이 소설은 각각 2009년과 2008년 발간된 최신작으로 『호밀밭의 파수꾼』과 유사하게 계몽적이지 않고 신랄함을 갖춘 성장소설이다. 비속어, 은유적 표현, 관용어구, 형식성이 낮은 간결하고 일상적인 문체 등 많은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착한 대화』의 본문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

-
- 4)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 또 쳐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 5) “이 자식이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놀자식.”
 - 6) “부정타라구 왜 올라와, 요망 맞은 년”
“듣기 싫어! 요망 맞은 년 같으니!”
“국으로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 7) “이 바보 녀석야!”
“애! 너 배넛 병신이지?”
“애!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 8) 『착한 대화』에 대한 에스 24 인터넷판 출판사(문학과 지성사) 리뷰는 “그칠 줄 모르는 재담과 능청, 의문스러움, 그리고 풍자와 골계미의 향연은 기본이다. 작가는 ‘기성세대로 하여금 청소년 세계의 리얼한 현실을 절실하게 접하도록 충격하여 자연스레 각성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어른도 읽는 청소년 소설’도 목표로 했다고 고백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으로 비존대형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소리’, ‘중딩’ 등의 은어, 비속어, ‘섹스스럽게 생겼다’, ‘섹스하고 싶게 생겼다’ 등의 성적 표현, ‘머리를 돌로 만 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모르쇠’ 등의 은유적 표현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1)은 기성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고 본문2)와 본문3)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본문1) 너희들은 왜 선생 말들은 무조건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 한 명이라도 더 대학에 보내겠다는 그 노력이 가상하지도 않나?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 좀 때릴 수도 있고 얼차려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피해보는 다수 학생들의 고통은 왜 모르쇠하는 건가. (p17)

본문2) 드라마만 막장인 게 아니야. 쇼도 뉴스도 다 막장이야. 방송 권력이 의도적으로 막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건 쇼건 중학교 1학년생 수준에 맞춰야 성공한다는 논리에 목숨 걸고, 모든 걸 그따위로 만드는 거야. 시청자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권력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 머리를 돌로 만들고 있는 거야. 요샌 중딩 1 수준도 아냐. 유치원 수준이지.(p139)

본문3) 우리 청소년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어른들, 웃기잖나? 침대 애들이 거의 발가벗고 춤추는 것을 침 질질 흘리면서 찬탄을 해. 꼭 추행 폭행을 하고 교제를 해야 성추행 성폭행이고 원조교제인가? 어른들의 더러운 마음속에 그러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 섹시하다니…… 그거 섹스스럽게 생겼다, 즉 섹스하고 싶게 생겼다, 그런 의미잖아? 섹시하게 생겼다는 말 듣고 좋아하는 애들 보면 기가 막혀.(p140)

두 번째로 살펴볼 김려령⁹⁾ 작가의 『완득이』¹⁰⁾는 ‘제 1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
- 9) 「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은 창비,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등 국내 우수 문학출판사의 상을 모두 휩쓴 신예로, 2008년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꼽히고 있다.
- 10) 인터넷 서점 예스24 출판사(창비) 리뷰는 “그간 우리 독자들은 성장소설의 진정한 감동과 재미를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서구소설이나 「Go!」같은 일본 대중소설에서 찾아왔던 것이 사실. 이제 우리도 청춘소설의 고전 반열에 들 작품, 그리고 한 세대

수상작으로 창비에서 2008년 출간된 활력 만점의 성장소설¹¹⁾이다.

『완득이』의 본문 중 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무슨 놈의 학교’, ‘될 놈들’, ‘땡 까는건’, ‘쪽팔린다’, ‘새끼’, ‘동네 양아치’, ‘씨발 놈’, ‘씨가지 없는 새끼’ 등 수많은 비속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담임을 똥주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비하시키는 부분도 눈에 띄는 점이다. 본문4)과 본문5)는 완득이와 똥주라 불리는 담임 사이의 대화이다.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담임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본문4) “무슨 놈의 학교가 아무나 야자야. 될 놈들만 따로 시키던가. 아 피곤하네. 대충하고 잘 사람은 자라. 종레 필요 없으니까 잘 사람은 자고.”
똥주는 머리를 긁으며 교실을 나갔다.

나도 똥주와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교실을 나왔다.

“야, 야, 도완득! 야자 땡 까는건 좋은데 내가 복도에서 사라지면 까셔.”

“.....”

“나온 김에 따라와. 앞 반의 어떤 놈이 쪽팔린다고 수급품 안 가져간 모양이야. 너나 가져가라.”

“.....”

“왜 너도 쪽 팔려 새끼야? 가난한 게 쪽팔린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 게 쪽 팔린거야.”

나는 당신이 담임이란 게 쪽팔려.

“잔말 말고 가져가. 그리고 잠곡밥은 좀 남겨라.”

똥주는 앞장서서 걸었다. 건들건들 걷는 모습이 동네 양아치 저리가다라.(p11)

본문5) “문 열어요!”

“못 열어, 새끼야!”

“씨발, 빨리 안 열어요!”

나는 문고리를 마구 흔들었다.

“이런 씨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선생님한테 씨발이야! 이 씨발 놈아!”(p72-73)

를 풍미할 주인공 ‘완득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 11) 완득이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 하나는 최고인 열일곱 소년으로 원수였던 담임 ‘똥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차츰 성장해 간다.

위의 텍스트들을 볼 때 한국어 청소년 소설에서도 은유, 비속어 표현과 격식성이 낮은 문체가 텍스트 전체의 주제와 맞물려 중요한 문학적 역할을 하면서 통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학 전체적으로 보건 성장 소설을 보건 한국어로 된 풍자적, 비판적 내용의 소설에서 비유, 관용어, 은유, 비속어의 사용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번역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은 수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분석 대상과 분석 기준

4.1 분석 텍스트

본 논문은 제롬 셀린저(Jerome Salinger) 원작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비속어가 많이 등장하며 은유적 표현과 관용어가 많고 감정이 강하게 표출된 부분도 많아 문학작품 중에도 매우 격식성이 낮은 작품이다. 선생, 부모, 사회 상류층의 허위와 속물근성, 가식적인 삶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모욕적인 언사가 빈번하게 등장해, 발표 당시 미국에서 초차 교육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비평가들의 평가도 다양했다.

사례 연구를 위해 조사한 번역서는 공경희 번역 민음사본(2001), 이덕형 번역 문예 출판사본(1985), 윤용성 번역 문학사상사본(1993), 조용남 번역 하서출판사본(1997) 등 4종이었다.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의 『호밀밭의 파수꾼』 17종에 대한 번역 평가를 보면 이덕형의 문예출판사본, 윤용성의 문학사상사본, 김옥동·염경숙의 현암사본을 가독성(readability)과 원문에 대한 충실성(faithfulness) 면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번역본으로 꼽았고 양병탁의 민중서관본, 이훈일의 성문당본, 조용남의 하서출판사본, 공경희의 민음사본을 무난한 번역이라고 평가했다(2005: 224-225). 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이덕형, 윤용성의 번역본과 무난한 번역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용남과 공경희의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4.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텍스트 내의 격식을 낮추는 요인 중 비속어 사용, 기성세대나 상급자에 대한 빈정대는 표현, 수사적 표현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선 이 언어들이 왜 텍스트의 격식을 낮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1 비속어

비속어의 발생요인은 통상어에 대한 진부성과 싫증에서 불만을 느꼈을 경우, 유머와 쾌감을 요구하는 심리, 풍자성과 신기성을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중훈외 2005: 18). 즉, 말하는 이가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기에 적당한 어휘가 없다면, 눈에 띈 우연의 유사성이란든지 마음속에 떠오른 유머러스한 연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마땅하지 않다면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나 변이적인 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김중훈이 밝히는 은어, 비속어를 사용하는 심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구 불만으로 인한 반항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자조와 풍자의 표현에서 사용

둘째,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수치감, 은폐의 목적에서 사용

셋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넷째, 유희적 쾌감을 맛보기 위한 수단에서 사용 (김중훈외 2005: 25)

첫 번째의 반항을 목적으로 하는 비속어와 두 번째의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비속어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조소하거나 성적인 금기를 표현하려 할 때 주로 쓰며, 세 번째 목적의 비속어는 범죄자들이 쓰는 욕설이고, 네 번째 것은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료함을 느낄 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망 때문에 창조해 낸다. 이를 볼 때 ST에 가득 찬 비속어 표현은 반항심과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주인공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성적 욕구를 잘 드러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작가로서 켈린저가 비속어가 섞인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데서 느끼는 유희적, 지적 쾌감 분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T의 비속어는 단순한 문학적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비속어, 욕설이라는 이유로 TT 독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무조건 생략이나 축소한다면 ST의 묘미를 느끼거나 주인공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4.2.2 관용어, 은유적 표현과 번역

은유적,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대화 참여자들 간에는 친밀감이 우러난다. 이는 기본적인 언어적 능력 뿐 아니라 공통의 경험, 흥미, 그리고 오가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민감함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대감이다(Gibbs 1994: 134). 다시 말해, 화자는 은유적, 관용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하고 청자는 화자의 발화 속에 숨어 있는 시적, 정서적, 감정적 효과를 발견해 내고 이해하는 데에 수사적 표현의 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관용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격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밀밭의 파수꾼』과 같은 텍스트는 표현을 알아듣고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과 지적 기쁨을 주지만 번역가들에게는 문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TT 독자들에게 ST의 독자들이 누린 수준의 심리적 유대감과 지적 만족감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비속어가 섞인 관용어 표현이 작가의 문체를 이루는 일부분이 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5. 사례 연구

5.1 대화체

『호밀밭의 파수꾼』은 1인칭 내러티브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문에 쓰인 주인공의 ‘대화체’가

텍스트 전반에 걸친 격식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경희, 이덕형의 번역에서 주인공은 서술형인 “했다체”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윤용성과 조용남의 번역에서는 대화체인 “~해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대 청자 대우의 양식은 크게 격식체(formal style)과 비격식체(informal style)로 나누어지며 비격식체의 기본은 존대형인 “~해요체”와 비존대형인 “~해체”이다. “이 같은 비격식체는 주로 비공식적인 일상 대화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전통적인 대우법의 체계를 흔들고 있다”(서정수 1996: 1019)는 점에서 볼 때 비격식체이며 비존대형인 “~해체”를 텍스트 전반에 사용한 윤용성과 조용남의 번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격식성이 많이 낮은 편이다. 다음 예문1)을 보면 공경희(TT1)와 이덕형(TT2)의 번역문보다 윤용성(TT3)과 조용남(TT4)의 번역문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격식성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주인공과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예문1) ST> The funny thing is, though, I was sort of thinking of something else while I shot the bull. (p13)

TT1> 그렇지만 정말 우습게도, 난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p25)

TT2> 그런 허튼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p24)

TT3>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그런 농담을 내뱉으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p31)

TT4>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따위 실없는 소리를 지껄이면서도 머리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단 말이야. (p22)

윤용성(TT3)과 조용남(TT4)이 “~했다”라는 일반적 서술체 문장을 쓰지 않고 비격식적, 비존대형 문체를 쓴 것은 번역가들의 기본 번역 전략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두 번역가의 텍스트에는 비속어, 관용어구 사용 빈도도 훨씬 높아 전체적으로 격식성이 많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모욕적 표현, 비속어, 관용어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하려 한다. (번역 사례 중

밑줄 친 부분은 ST와 대응되는 번역 부분이고 볼드체를 써준 부분은 번역가가 다른 부분에서 비속어의 누락을 보충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이 강하게 들어간 표현으로 바꾸어 준 부분이다.)

5.2 사회적 권위와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표현

ST에는 선생님, 부모, 종교지도자, 사회 지도층, 기성세대를 조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상하위계질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수직적인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수직적 사회 규범의 흔적인 공대법이 언어 규범으로 남아 있는 하나의 증거이다(심윤섭 2008: 138). 이 같은 사회적 용인성 차이로 생기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TL 규범에 대한 번역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많다는 것이 번역 예문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예문2) ST는 선생 뒤에서 ‘sonuvabitch’라고 모욕하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개새끼’가 되겠지만 4개의 번역 사례에서는 생략, ‘그 놈의 하첼 선생’, ‘망할 놈의 하첼 선생’, ‘하첼 새끼’ 등으로 매우 다르게 번역되었다. 선생님에 대한 TT4는 ‘그 새끼’라는 표현도 매우 강하지만 그 뒤에도 ‘영어는 끝내준다’는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격식성이 가장 낮았다.

예문2) ST> That sonuvabitch Hartzell thinks you're a hot-shot in English and he knows you are my roommate. (p28)

TT1> 그 망할 놈의 하첼 선생은 네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내 룸메이트인 것도 알고 있고. (p45)

TT2> 그 놈의 하첼 선생은 네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나하고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p48)

TT3> (____)하첼 선생은 네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도, 네가 나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p53)

TT4> 하첼 그 새끼는 네가 영어는 끝내 준다는 걸 알거든. 내 룸메이트라는 것도. (p44)

예문3)은 어머니가 가게에 들어가서 ‘dopy questions(멍청한 질문)’을 했다는 대목으로 TT2만 직역하여 ‘바보스러운’이라고 번역했고 TT1은 생략, TT3, TT4

은 각각 ‘주책없이’, ‘꼬치꼬치’ 등으로 표현했다. 어머니를 멍청하다고 비하하는 표현을 삼가면서 그 함의를 살려주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예문3) ST> I could see my mother going in Spaulding’s and asking the salesman a million dopy questions.(p52)

TT1> 스포딩 운동용품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온갖 (_____) 질문을 다 하면서 이 스케이트를 샀을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p75)

TT2> 스포딩 운동구점에 들어가 판매원에게 이것저것 바보스러운 질문을 해대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p82)

TT3> 엄마가 스포올딩 운동구점에 가서, 점원에게 주책없이 이것저것 질문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구.(p85)

TT4> 엄마가 스포딩스 운동구점에 가서, 점원에게 꼬치꼬치 수백만 가지 질문을 해대는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p79)

5.3 비속어

5.3.1 전체 비속어 분석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전에 의하면 『호밀밭의 파수꾼』은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문학작품보다 훨씬 많은 비속어, 욕설 때문에 호된 비평을 받기도 했다. 한 학부모의 조사에 의하면 텍스트 전체에는 ‘goddam’이 237번, ‘bastard’가 58번, ‘Chrissake’가 31번, ‘fuck’이 6번 등장한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수한 비속어와 성적 표현들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as hell’과 ‘damn’이 강조 부사로 사용¹²⁾되었으며, ‘hell’이 삽입¹³⁾되어 전반적으로 더 반

12) ‘as hell’은 형용사 뒤에서 ‘hot as hell’, ‘cold as hell’, ‘phony as hell’, 등과 같이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damn’은 형용사 앞에서 ‘damn near’, ‘damn good’, ‘damn playful’, ‘damn worried’ 등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13) Where the hell is everybody?

What the hell’s the difference?

What the hellya reading?

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 room.

항적이고 구어체적인 느낌이 드는 문장이 많다. 다음 <표1>은 1장에서 10장까지 ST에 등장한 비속어 중 ‘goddam’, ‘as hell’, ‘Chrissake’, ‘sonuvabitch’, ‘bastard’ 등 대표적인 것들을 조사한 것으로 ST 전체에 얼마나 많은 비속어가 등장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1> 1장부터 10장까지 각 장의 비속어 개수

	1	2	3	4	5	6	7	8	9	10	합
goddam	4	3	18	19	5	26	14	6	3	7	105
as hell	2	3	3	3	1	4	2	2	2	2	24
Chrissake	0	0	5	7	0	2	6	0	0	2	20
sonuvabitch	0	0	6	1	0	3	0	1	0	0	11
bastard	0	1	1	6	2	5	4	2	1	0	22

5.3.2 ‘goddam’의 번역

대표적으로 쓰인 비속어 ‘goddam’은 문맥에 따라 욕설의 세기와 감정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망할’, ‘빌어먹을’ 등의 욕설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그 놈의’, ‘그런 따위’, ‘~다 뭐다’ 등으로 약화되거나 문맥에 맞는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이한 점은 거의 대부분 번역이 생략되었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생략의 빈도가 현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번역가들이 초반에 비속어로 번역을 하다가 텍스트의 격식성, 공손성이 지나치게 낮아질 것을 우려했거나, 후반으로 갈수록 비속어를 대체할만한 문맥에 맞는 어휘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는 번역가 별로 나타난 ‘goddam’의 번역양상이다. 전체 105회 중 goddam이 생략되지 않고 번역된 회수는 공경희 8회, 이덕형 13회, 윤용성 13회, 조용남 24회에 불과하다. 대부분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가들 간 전략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났다. 공경희의 경우 비속어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으나 조용남은 ‘빌어먹을’, ‘망할’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He banged the hell out of the room.

<표 2> ‘goddam’(105회)의 번역 방법

번역가	TL의 비속어	설명, 강조, ~따위 등	생략
공경희 TT1	4(4%)	4(4%)	97(92%)
이덕형 TT2	3(3%)	10(9%)	92(88%)
윤용성 TT3	5(5%)	8(7%)	92(88%)
조용남 TT4	15(14%)	9(9%)	81(77%)

‘goddam’의 구체적인 번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미 번역

‘goddam’은 신성모독적인 욕설로 TL에 일대일 대응어는 없으나 유사한 욕설로 ‘빌어먹을’, ‘얼어죽을’, ‘염병할’, ‘망할’ 등 저주를 퍼붓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ST의 ‘goddam’은 TL 욕설로 번역할 수 있으나 ST의 많은 ‘goddam’이 모두 감정의 강도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욕설의 의도가 강하지 않다고 파악되는 부분에서는 번역가들은 예문4)의 TT1, TT2처럼 각 문맥에서 ‘goddam’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 이 문맥에서는 TT1과 TT2 번역가들은 ‘goddam’의 의미를 ‘따분한’이라고 보았다.

예문4) ST> I’m not going to tell you my whole goddam autobiography or anything.(p1)

TT1> 난 여기서 따분하기 그지없는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p10)

TT2> 지금 나는 따분한 자서전을 늘어 쓰려는 것이 아니다. (p7)

2. 생략과 다른 부분에서 보충

거의 대부분의 경우 ‘goddam’의 번역이 생략되었으나 생략된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보충해 주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 예문5)를 보면 ‘goddam’의 번역이 생략된 대신 문장 내의 다른 부분에서 강세를 넣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TT2, TT3, TT4는 ‘동사’의 표현 강도를 세게 하여 ‘goddam’이 생략된 것을 보완해 준 경우이다.

예문5) ST> and the next thing I knew, I was on the goddam floor again. (p45)

TT1> 곧이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p66)

TT2> 다음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바닥에 **나가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p72)

TT3>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또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거야. (p75)

TT4>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또 ()방바닥에 **나자빠져** 있는 거야.(p68)

예문6)의 TT2와 TT4 또한 ‘goddam’의 번역은 생략되었으나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head’를 ‘모가지’로 더 강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goddam’이 ST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더라도 텍스트 곳곳에서 머리-->대가리(대갈통), 입-->주둥이(아가리), 얼굴-->상관때기 등으로 번역된 현상도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번역가들은 다른 부분의 비속어 생략을 보충해 주었다. 예문7)의 TT1, TT2, TT3, TT4과 예문8)의 TT3가 그 예이다. 예문8)의 TT3을 보면 ‘상관때기나 닳고’는 ‘세수하고’ 보다 훨씬 격식성이 떨어지고 감정의 강도가 센 것을 알 수 있다.

예문6) ST> Wuddaya wanna make me do-- cut my goddam head off?(p30)

TT1> 까달 잘못했다가는 () 목을 벨 뻔했잖아. (p47)

TT2> 어찌려고 이래? 내 () **모가지**라도 베려는 거야?(p50)

TT3> 어쩔 셈이야, () 목을 자르려는 건 아니겠지?(p55)

TT4> 너, 내가 () **모가지** 자르는 걸 보고 싶냐?(p47)

예문7) ST> “What a thing to say. Want to wash your mouth out with soap?” (p43)

TT1> “말하는 거 봐라? 네놈의 주둥아리를 비누로 씻어주라?”
(p64)

TT2>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주둥아리를 비누로 닦아줄
까?”(p69)

TT3>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비누로 네 주둥아리를 씻어 줘야겠
니?”(p73)

TT4> “말 조심해. 주둥이 세탁해 주라?” (p66)

예문8) ST> “Listen, go wash your face,” Stradlater said. “Ya hear
me?” (p45)

TT1> “가서 얼굴이나 닦아. 듣고 있는 거야?” 스트라드레이터가
말했다. (p67)

TT2> “이봐, 가서 세수하고 와.” 스트라드레이터가 말했다. “내 말
듣고 있냐?” (p73)

TT3> “이봐. 그 상관대기 좀 씻고 와, 알았지?”하고 스트라드레이
터는 말했다.(p76)

TT4> “야, 그 얼굴 좀 씻고 와. 알았지?” 스트라드레이터가 말했
어. (p69)

5.3.3. ‘as hell’의 번역

ST에 쓰인 ‘phony as hell’, ‘corny as hell’, ‘hot as hell’, 등의 ‘as hell’은 많은 경우 욕설의 의미는 크지 않았고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어에도 이와 유사하게 ‘더럽게 잘난 체하네’, ‘얼라 힘들어’, ‘우라지게 어려워’ 등의 표현들이 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본 결과 ‘as hell’의 경우 ‘우라지게’, ‘더럽게’ 등 비속어로 번역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예문9)의 TT2, TT3, TT4과 같이 대부분 ‘매우’, ‘굉장히’, ‘지독히’, ‘끔찍이’, ‘아주’ 등의 강조 부사로 바뀌어 번역되거나 생략되었다. 조용남만 몇 군데에서 ‘더럽게’, ‘겁나게’ 등 구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TT1처럼 함의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경우도 가끔 있었다. <표3>은 번역가 별로 나타난 번역양상이다.

<표 3> ‘as hell’ (24회)의 번역 방법

	TL의 비속어	강조부사, 설명	생략
공경희 TT1	0	18 (75%)	6(25%)
이덕형 TT2	0	15(62.5%)	9(37.5%)
윤용성 TT3	0	16(67%)	8(33%)
조용남 TT4	3(12.5%)	12(50%)	9(37.5%)

예문9) ST> It was hot as hell and windows were all steamy.
(p26)

TT1> 화장실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고, 창문마다 김이 서려 있었다. (p42)

TT2> 실내는 지독히 더워서 창문에 뿌연게 김이 서렸다. (p 45)

TT3> 실내는 몹시 무더웠어.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김이 서려서 흐려 있었구. (p50)

TT4> 실내는 지독하게 더운데다가 창문들은 온통 김이 서려 있었지. (p 42)

5.3.4. ‘Chrissake’의 번역

‘Chrissake’의 번역 사례를 보면 일부는 ‘제기랄’, ‘제길’, ‘젠장’ 등의 비속어로 번역되었으나 대다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맙소사’, ‘놀라운 일인데’ ‘내 참 기가 막혀서’ ‘무슨 소리아?’ 등의 감탄사로 번역되었다. 문맥에 따라 적절한 대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용남은 ST와 같은 ‘제기랄’, ‘젠장’ 등의 비속어로 번역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경희의 경우 다른 비속어의 경우는 생략 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Chrissake’의 경우는 감탄사로 번역해준 경우가 많고 생략빈도가 낮은 것이 눈에 띄었다. 여성 번역가들의 감탄사 사용빈도가 남성 번역가들 보다 높다는 김동미(2007: 45-47)의 연구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비속어 사용빈도는 낮고 감탄사나 부가 의문문의 사용은 높으며 이것이 번역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표 4>는

각 번역가 별 ‘Chrissake’의 번역 양상이다.

<표 4> Chrissake (20회)의 번역 방법

	TL의 비속어	감탄사, 부탁하는 말	생략
공경희 TT1	5(25%)	10(50%)	5(25%)
이덕형 TT2	5(25%)	7(35%)	8(40%)
윤용성 TT3	1(5%)	7(35%)	12(60%)
조용남 TT4	11(55%)	4(20%)	5(25%)

예문 10) ST> All of a sudden, he said, “For Chrissake, Holden. This is about a goddam baseball glove.”

TT1> 불현듯 그가 말했다.

“이게 뭐야, 홀든. 야구 글러브에 대한 내용이잖아.”(p61)

TT2> 갑자기 녀석이 소리쳤다.

“아니 이럴 수가! 홀든, 이걸 야구 글러브에 대한 얘기 아냐?”

(p66)

TT3>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놈이 소리쳤어.

“야, 홀든, 이거 야구 글러브 얘기 아냐?” (p70)

TT4> 놈이 갑자기 소리쳤어.

“제기랄 홀든, 이거 야구 글러브 얘기 아냐?”(p63)

5.3.5 ‘bastard’의 번역

‘bastard’의 경우는 ‘놈’, ‘자식’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문맥에 맞게 ‘얼간이’, ‘멍청이’ 등으로 전달된 경우도 많았다. ‘bastard’도 ‘goddam’처럼 각각의 문맥에서 쓰인 감정의 강도가 차이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예문11)과 같이 동급생의 어머니 앞에서 친구를 나쁘게 생각하는 대목에서는 모자관계를 고려하여 ‘멍청한’, ‘얼간이’, ‘못난 녀석’, ‘망나니’ 등으로 번역 되었고, 예문 11)과 같이 친구와 싸움을 하는 문맥에서는 원래 표현대로 ‘새끼’, ‘개자식’ 등 강한 욕설로 번역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고조되지 않거나 친구들을 지칭하는 목적으로 쓰인 문맥에서는 ‘녀석’, ‘놈’ 등의 약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명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표현들보다 생략되는 경우는 적었다.

<표 5> ‘bastard’(22회)의 번역 방법

	TL의 비속어		의미 번역, 명시화	생략
	강한 표현	약한 표현		
공경희 TT1	0	13(59%)	5(23%)	4(18%)
이덕형 TT2	5(23%)	9(41%)	6(27%)	2(9%)
윤용성 TT3	3(14%)	11(50%)	6(27%)	2(9%)
조용남 TT4	3(14%)	9(41%)	8(36%)	2(9%)

예문11) ST>She looked like she might have a pretty damn good idea what a bastard she was the mother of. (p55)

TT1> 자기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고나 할까. (p79)

TT2> 자기 아들이 얼마나 얼간이인가 하는 정도는 깨달을 만한 엄마의 얼굴이었다. (p88)

TT3> 자기 아들이 얼마나 못난 녀석인가를 훤히 알아차릴만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말이야. (p90)

TT4> 자기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수준으로 보였거든. (p85)

예문12) ST> “Go on, get offa me, ya crumby bastard.” (p44)

TT1> “어서 비키지 못해? 이 지저분한 자식야.”(p65)

TT2> “비켜! 비키지 못해! 이 지저분한 새끼야!”(p71)

TT3> “야. 비키지 못하겠어. 이 개자식.”(p74)

TT4> “치우라구, 비켜, 이 자식야.”(p67)

결론적으로 보면 번역가들은 문맥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비속어를 써 주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는 일상적인 표현을 써주거나 생략 하는 전략을 썼음을 알 수 있다.

5.4 수사적 표현

5.4.1 관용구

관용적 표현 중에는 수사적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도 각각의 어휘적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ST의 관용어 표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ST 작가가 비속어를 섞어서 감정적 의미(expressive meaning)는 강해지고 격식성은 낮은 표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관용구와 일상적인 관용구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창의적 관용구의 실제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 예문13)의 ST는 ‘비가 억수로 퍼붓다’라는 의미의 ‘raining like cats and dogs’가 ‘raining like a bastard’로 바뀌었다. 이처럼 ‘bastard’가 들어가서 감정표현이 강해지고 저속해진 경우 번역가들은 욕설로 된 표현을 만들어 주기 보다는 의미만 살려 번역했다. 그러나 예문14)를 보면 가장 통상적인 표현을 쓴 TT1과 저속한 TL의 관용적 표현을 쓴 TT4 사이에 생동감과 표현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4)의 ST는 ‘애써 ~하려하다’라는 의미의 관용구 ‘break her leg’에 ‘goddam’까지 추가 되어 ‘break her goddam leg’이라는 강한 표현이 되었다. 이 경우에도 TT1, TT2, TT3 등에서 번역가들은 의미를 살리는 번역을 했고 이로 인해 표현과 감정의 강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TT4 만은 TL의 강한 관용구인 ‘가랑이가 찢어져라 전화통으로 달려가’라고 번역되어 ST의 효과와 의미를 모두 전달해 주었다. TT2와 TT3은 관용적 표현을 다 살려주지는 못했지만 표현을 살려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고 ‘전화’를 ‘전화통’이라고 번역해 TT1보다는 생동감 있게 번역되었다.

예문13) ST>it was raining like a bastard out.(p78)

TT1>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p108)

TT2> 밖에는 비가 억수로 퍼붓고 있었다. (p120)

TT3> 바깥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p121)

TT4> 바깥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 (p117)

예문14) ST> Her mother knew my mother, and I could picture her breaking her goddam leg to get to the phone and tell my mother I was in New York. (p59)

TT1> 그 애의 엄마는 우리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곧장 전화해서 내가 뉴욕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p84)

TT2> 그녀의 엄마는 우리 엄마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통으로 급히 달려가서 당신 아들이 뉴욕에 와있다고 우리 엄마에게 알릴 모습이 눈에 선했다. (p94)

TT3> 그 애 어머니는 우리 엄마와 서로 아는 사이거든. 그 애 엄마가 허둥지둥 전화통으로 달려가서, 우리 집에다 내가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구. (p96)

TT4> 그 애 엄마는 우리 엄마와 서로 아는 사이거든. 그 애 엄마가 가랑이가 찢어져라 전화통으로 달려가, 우리 집에다 전화를 걸어 내가 뉴욕에 있다고 알려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머리 속에 그려 볼 수 있었으니까. (p91)

일반적인 관용구의 번역을 살펴보면, 관용구는 대체적으로 ST의 관용구를 그대로 써주거나, 유사한 의미의 TL 관용구로 바꾸어 주거나, 그 의미만 살려 번역하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번역된다. 연구대상 번역문들에서는 예문15)를 보면 TT1과 TT2는 의미만 살려 번역하여 관용적 속성이 사라졌고 TT3와 TT4는 관용적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텍스트 전체의 격식성을 고려할 때는 ‘give guys the ax’는 ‘퇴학’보다는 ‘짜르다’ ‘쫓아내다’ 등 TT3와 TT4가 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예문15) ST> They give guys the ax quite frequently at Pencey. (p 4)

TT1> 펜스에서 퇴학이라는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p 13)

TT2> 펜시에서는 퇴학이 자주 있는 일이었다. (p 11)

TT3> 펜시에선 여차하면 학생들을 쫓아내곤 했어. (p 17)

TT4> 펜시에서는 학생들을 잘 짜랐다구. (p9)

예문16)은 주로 SL의 관용구를 TL관용구로 번역한 예이다. TT1, TT2, TT3은 ST의 표현과 유사한 ‘웃는다’는 의미를 가진 TL의 관용구를 찾아 번역해 주었다. TT4만 의미를 살린 번역을 하였는데 다른 번역보다 생동감이 감소했다.

예문16) ST> Something like that, a guy getting hit on the head with a rock or something, ticked the pants off Ackley. (p 23)

TT1> 이런 일, 누군가가 돌맹이 같은 것으로 머리를 맞는 일 같은 것을 애클리 자식은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다. (p 38)

TT2> 이런 일, 말하자면 누가 돌맹이 같은 것으로 대가리를 맞는 따위의 일이 일어나면 애클리는 오줌을 짚꺼릴 정도로 좋아했다. (p 39)

TT3> 이런 일이 있으면--누군가 머리에 돌 같은걸 맞는다는가 하면 말이야--애클리 놈은 허리가 끊어져 나갈 듯이 재미있어 한다니까.(p 46)

TT4> 이런 일이 있으면--누군가 머리에 돌 같은 걸 맞는다는지 할 때 말이야--그놈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지. (p37)

<표 6> 전체 관용구(23회) 번역 방법

	의미만 살려서 번역	ST의 관용 표현 그대로 번역	TL의 관용어나 은유로 번역
공경희 TT1	20(87%)	1(4%)	2(9%)
이덕형 TT2	19(82.6%)	1(4%)	3(13%)
윤용성 TT3	17(74%)	1(4%)	5(22%)
조용남 TT4	18(78%)	2(9%)	3(13%)

위의 관용구 번역을 종합해 볼 때 1장부터 10장 까지 필자가 조사한 23개의 관용어들의 번역 방법은 위의 <표 6>과 같다. 직역할 경우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서인지 주로 의미만 살려서 번역한 경우가 많았다.¹⁴⁾ 이 같이 관용적 효과가

14) ST에는 같은 관용구가 반복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번역 방법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했다.

감소되는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 번역가들은 ST에 관용구 표현이 아닌 곳에 TL 관용어를 삽입해 준 곳이 많았다. 다음 <표 7>의 예문들은 번역가들이 ST의 상투적인 표현을 관용구나 은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한 예이다. 다른 부분에서 살려주지 못한 생동감과 유머가 어느 정도 보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예문 6), 7), 8)처럼 ‘홍두깨’, ‘미역국’, ‘감투’ 등 TL 문화적 배경이 가미된 표현들은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용인성이나 가독성을 고조시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나친 자국화(domestication) 번역은 ST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ST의 일반어가 TT에서 관용어나 은유로 번역된 예

ST	TT
1)I was <u>so mad</u> , I was practically bawling. (p45)	TT4: <u>완전히</u> 꼭지가 돌 정도로 열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구. (p69)
2)They <u>lose their jobs</u> if they got caught selling to a minor. (p70)	TT2: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발각되는 날이면 <u>모가지가 달아나기</u> 때문이다. (p109)
3)It <u>takes things a while to hit me</u> . (p14)	TT4: 제가 좀 <u>형광등</u> 이거든요 (p24)
4)They had this headmaster, Mr. Haas, that was the <u>phoniest bastard I ever met in my life</u> . (p13-14)	TT4: 하스라는 교장은 내가 <u>머리털 나고서 처음 보는</u>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구. (p24)
5)“Ernest just <u>adores</u> it.” (p55)	TT2: 어니스트는 <u>입에 침이 마르도록</u> 학교를 칭찬하던데. (p87)
6) <u>All of a sudden</u> , he said,(p41)	TT3: 그런데 <u>아닌 밤중에 홍두깨</u> 식으로 놈이 소리쳤어. (p70)
7)I was <u>flunking</u> four subjects and not applying myself and all. (p4)	TT3: 무려 4과목이나 <u>미역국을 먹은</u> 데다가 공부를 하려는 의욕도 전혀 없었으니까.
8)I was the <u>goddam</u> manager of the fencing team. <u>Very big deal</u> . (p3)	TT2: 나는 빌어먹을 펜싱 팀의 주장이었다. <u>대단한 감투</u> 가 아니고 뭘가. (p10)

전체적으로 공경희의 번역문에 새로운 TL의 관용구 삽입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

5.4.2 은유

관용어가 사회적으로 이미 오랜 시간 통용되어 이미 정형화된 표현이라면 은유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만들어 낸 창의적 표현이다. 문학에서 은유적 표현은 작가의 문학적 소양과 사고, 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들은 다른 표현보다 은유의 번역에 있어 가장 ST에 대한 충실성을 기하려 했다. <표 8>은 번역가 별 은유의 번역 양상으로 관용구보다 은유 번역에서 표현과 의미를 모두 살려 그대로 번역한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은유(17번)의 번역 방법

	의미만 살려 번역	ST의 은유 그대로 번역	TL의 은유로 번역
공경희 TT1	9(53%)	8(47%)	0
이덕형 TT2	7(41%)	9(53%)	1(6%)
윤용성 TT3	6(35%)	9(53%)	2(12%)
조용남 TT4	7(41%)	8(47%)	2(12%)

예17)은 모든 번역가들이 ST의 은유를 같은 표현의 은유로 번역해 준 경우이다. 단, TT1처럼 은유를 ‘~같다’, ‘~와 마찬가지로이다’라고 직유로 바꾸어 번역하면 그 의미가 좀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문17) ST> He just kept talking about Life being a game and all. (p8)

TT1> 인생이란 시합과 같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p19)

TT2> 인생이란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p18)

TT3> 다만 인생은 경기다 뭐다 하는 말씀만 계속하셨어요.(p24)

TT4> 그냥 인생은 경기라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씀만 하셔

어요. (p16)

예18)은 번역가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을 취한 것으로 TT1은 ‘마녀’를 ‘요부’라는 좀 더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을 해주었고 TT2는 TL문화에서 ‘witch’에 해당하는 ‘무당’이라는 문화적 단어로 대체한 후 ‘무당 같은’이라는 직유 표현을 써주었으며 TT3는 가장 ST에 가까운 ‘마귀할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TT4는 상위어인 ‘여자’로 번역하여 은유적 맛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이다.

예문18) ST> I started giving the three witches at the next table the eye again.(p70)

TT1> 난 다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 명의 요부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p98)

TT2> 나는 옆자리에 있는 그 무당 같은 세 여자들에게 다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p109)

TT3> 나는 옆자리에 앉은 세 명의 마귀할멈들에게 또 윙크를 보내기 시작했다. (p110)

TT4> 나는 옆자리에 앉은 세 명의 여자에게 또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p106)

6. 결론

『호밀밭의 파수꾼』의 4종 번역본에 나타난 비속어와 은유, 관용구 번역을 중심으로 목표어 텍스트의 격식성과 원천어 텍스트의 격식성을 비교해 본 결과 목표어 텍스트의 격식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속어 번역 전략은 크게 나누어 볼 때 4가지로 TL의 비속어로 번역, 함의를 드러내 주거나 설명, 생략, 다른 부분에서 생략을 보충해주는 등의 방법이 있었는데 TT의 비속어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든 현상이 눈에 띄었다. 번역이 생략된 부분이 많았고 감정이 약화된 통상적 표현으로 바뀐 경우도 많았다. 특히 ‘goddam’, ‘as hell’, ‘damn’ 등에서는 80-90% 번역이 생략되거나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로 번역되었다. 주목할 점은 번역가들은 텍스트 전체를 번역의 단위(unit of translation)로 생각하고 생략이나 감정 세기의 약화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윤용성과 조용남 번역가는 1인칭 내러티브 소설인 ST 전체를 격의 없는 비존대형인 “해체” 말투로 번역했고, 그로 인해 전체 텍스트의 격식성을 많이 낮출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번역가들이 ST에 비속어 표현이 없는 곳에 TL비속어 표현을 추가하거나 문맥에 따라 거친 표현을 삽입해 다른 곳의 누락을 보충해 주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비속어의 번역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번역가마다 표현의 강도와 격식성에 차이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도 여성인 공경희 번역가의 작품에서 비속어, 거친 말투, 격의 없는 표현 등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가 남성 사회에서 쓰이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김중훈 외 2005: 50-51). 또한 김동미(2007: 55)에 의하면 감탄사, 비속어, 부가의문문 등 다양한 화용, 통사적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들의 언어사용 습관의 차이가 나며 이것이 번역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이 이번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용인성 면에서는 ST와 유사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TL의 비교 텍스트 『완득이』나 『착한 대화』등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비속어 표현이 눈에 띄게 사용된 것을 볼 때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담은 번역물도 독자들에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어로 쓰인 비교 텍스트에서는 ‘sonuvabitch’, ‘bastard’와 유사한 욕설들인 ‘개새끼’, ‘씨발 놈’, ‘망할 새끼’, ‘짜가지 없는 놈’, ‘양아치’ 등의 욕설이 자주 쓰인 반면에 번역문에서는 강도가 약한 ‘새끼’, ‘놈’, ‘자식’, 정도로 번역되거나 많은 부분 생략되었다. ST의 ‘Chrissake’와 유사한 “우라질”, “씨발” 등 내뱉는 투의 말들도 한국어 텍스트들에 자주 쓰인 반면 번역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었고, ‘아니 이럴 수가’, ‘야’, ‘이게 뭐야’ 등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비교대상이 된 한국어 텍스트 저자보다 번역가들은 은어, 비속어 사용에 훨씬 조심스러웠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번역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전문 문학 번역가이자 이론가인 클리포드 랜더스(Clifford Landers)에 의하면 욕설이나 성적인 표

현의 번역에 있어 “문학번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번역가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독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위나 고상함을 고려해서 표현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시도이다.....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회의 문화, 도덕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단어나 문장을 삭제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잣대로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텍스트를 마음대로 다루던 구시대의 접근법이다.”(이형진 역 2009: 285-286). 다시 말해 번역가의 도덕관 때문에 텍스트의 격식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은유와 관용구 번역에서도 수사적 표현이 사라진 곳이 많았고 그로인해 격식성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용구, 은유 번역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함의만 살려주는 번역, 둘째, ST의 표현과 의미를 모두 살리는 번역, 셋째, TL의 관용구나 은유로 대체해 주는 방법, 넷째, 다른 부분에 관용적 은유적 표현을 보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관용구 번역에서는 의미만 살리는 번역방법이 두드러졌는데(70-80%) 그 이유는 첫째, 관용구는 문화,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고착된 표현이라서 그대로 번역할 경우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ST의 많은 부분에서 작가가 관용구에 비속어를 추가한 변형된 관용구를 써주어서 감정의 세기는 매우 강해졌고 번역하기는 더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만 살리는 번역을 하니 작가의 의도와 창의성을 살려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에 대해 번역가들은 ST에 관용구가 없는 부분에서 새로운 관용구를 만들어 삽입함으로써 의미번역으로 인해 생동감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려는 노력을 했다. ST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라도 TL 관용구를 써주거나 텍스트의 다른 곳에 새로운 관용구를 추가해 전체 텍스트 내의 수사적 표현의 양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추려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용구 번역과는 대조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의적인 은유의 번역에서는 ST 표현 그대로 TL의 표현으로 대체했던 은유적 표현을 살려 준 경우가 60%에 달했다.

분석을 통하여 번역가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언어습관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려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번역가들은 ST 작가가 사용했고 TL 작가들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도 직접 번역문에 사용하는 경우 저속하거나 지나치게 격식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ST 속의 많은 비속어나 관용구들 중 주인공이 습관적으로 사

용하여 문맥상 큰 중요성이 없는 것들도 있으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모여 켈린저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나친 생략과 단순 의미 번역은 문체가 주는 효과 전달 면이나 작가의 의도전달 면에서 볼 때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번역가들이 TL 텍스트의 언어 규범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거나 TL 독자들의 도덕의식을 해치지 않기 위해 ‘착한 텍스트’를 만들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번역가들은 스스로가 가진 재량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체적인 효과와 내용, 표현 방식을 모두 고려하는 번역문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미 (2007)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연구: 화용, 통사론적 특징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1): 37-60.
- 김려령 (2008) 『완득이』, 서울: 창비.
- 김순미 (2003) 「영한번역에서의 은유에 관한 연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종광 (2009) 『착한 대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중훈 외 (2005) 『은어 비속어 직업어』, 서울: 집문당.
- 서재석 외 옮김 (2001) 『화용론』, 서울: 박이정. (Yule, George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서정수 (2006) 『국어 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심윤섭 (2008)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보는 한일 번역양상 변화」, 『통번역 교육 연구』 6(2): 137-162.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 이지연 (2007)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1): 243-282.
- 이형진 옮김 (2009) 『문학번역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Landers, Clifford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The

Multilingual Matters.)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87)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bbs, Raymond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New York: Longman.

---- (1998) 'Text Politeness: A Semiotic Regime for a More Interactive Pragmatics', in Leo Hickey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72-102.

Heylighen, Francis and Jean-Marc Deweale (1999) 'Formality of Language: Definition, Measurement, and Behavioral Determinants', Brussels: Free University of Brussels, 1-38.

House, Juliane (1998) 'Politeness and Translation', in Leo Hickey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4-71.

Klaudy, Kinga (1998) 'Explicitation', in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80-85.

[Abstract]

Changes in Formality in Literary Translation

Kim, Soon-mi

(Sookmyung University)

The paper aims to analyze changes in formality in literary translation. Informal texts including literary works and movie scripts are characterized by implicitness, flexibility, colloquialism,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involvement as opposed to formal texts such as lectures, academic papers, or business letters which are more accurate, rigid, explicit, and complex. Thus, it is important for translators to decide the level of formality before they start translation.

Because the Korean culture puts an emphasis on formality, social status, and the distance between people, the Korean language reflects this socio-cultural background. Moreover, translation process in its nature has a tendency to normalize and explicate the implicit meaning of the original for the TT(target text) reader. Previous research on English German translation shows formality and politeness between ST(source text) and TT differs because the translator followed the textual norms of TL(target language)(Hatim 1998: 69). However, according to Hatim, in persuasive text or literary text, where maintaining the atmosphere and socio-textual background of ST(source text) is important, the efforts to keep the level of ST formality intact should be appreciated(97). Thus, translators of literary texts should take both TL textual norms and the genre-specific character of literary translation into account.

For the case study of formality, this paper analyzed slangs, idioms, metaphors and derogatory expressions in *Catcher in the Rye*, a young adult novel by J. D. Salinger. A first person narrative, this novel is known for its

profanity, sarcasm, sexual content and informal style. As metaphors, idioms and slangs turned out to be important stylistic devices in the similar Korean literature as are in the English literature, translators could maintain ST formality without lowering the readability and acceptability of target readers.

The analysis of four translated texts showed the formality of TTs rose significantly in all texts, although there were some variations among translations in terms of their usage of informal and colloquial language. Only 10-20% of slangs('goddam', 'as hell') were translated into TL slangs and the force of expressive meanings, weakened. In the case of idiomatic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only 20-30% of idioms were translated into idiomatic expressions and many rhetorical expressions were translated into conventional language. Translators tried to compensate for the omission in other parts of the text by adding new rhetorical and derogatory expressions. However, there need be more creative efforts to deliver the effect and atmosphere of ST. Explication, omission and normalization are not always the best translation technique in literary translation.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formality, slangs, metaphors, explication

김 순 미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smi-kim@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 교수법, 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8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